“소통 · 화합 위해 노력해달라”

자승 스님, 9일 이완구 국무총리 예방서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게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3월 9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 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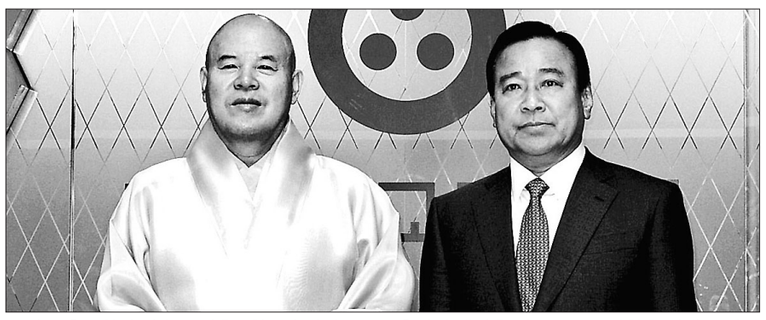
자승 스님은 “늦게 나마 총리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취임사에서 사회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잘 소통하는 것”이라며 주나라 주공의 ‘일목삼착(一沐三捉) 일반삼토(一飯三吐)’ 고사를 인용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소통과 통합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주나라 주공”이라며 “일목삼착 일반삼토의 부지런함을 먼저 보여준다면 소통과 화합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올해 대통령 집권 3년차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소통에 방점을 두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말 이후 만남 자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총무부장 지현 스님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9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소통 ·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운사 새 주지에 경우 스님 선출

7일 산중총회서 82표 얻어… 도정 스님 26표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신임 주지에 경우 스님이 당선됐다. 선운사는 3월 7일 오후 1시 산중총회를 열고 신임 주지 선출을 진행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주지 선출에 앞서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으며, 직접 선거로 주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종회에서 경우 스님〈사진〉은 111명 중 82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상대 후보로 나온 도정 스님은 26표를 받았으며, 무효표는 3표가 나왔다.

당선 직후 경우 스님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범여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 자리에서 경우 스님은 “8년간 전임 주지 법만 스님이 본사를 잘 이끌어오셨다. 계승 발전할 부분은 발전시키고 진행됐던 불사는 잘 마무리하겠다”면서 “대중들의 뜻을 잘 받들어 사찰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우 스님은 전임 주지 스님인 법만 스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사중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무엇보다 경우 스님은 자신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내놨다. 경우 스님은 공약으로 총림 지정을 비롯해 △문중과 세대를 잇는 원융화합 △본말사 균형발전 △노후 수행복지 △맞춤형 포교전략 수립 △수행문화 공동체 형성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공약 이행에 대해 경우 스님은 “총림 지정이나 비구니 스님들의 노후 수행마을 등 공약 사항은 취임 이후 별도의 팀을 구성해 임기 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대 후보로 나온 도정 스님에게는 “사제 간 경쟁을 펼쳐 마음이 아프다. 함께 교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경우 스님은 태허 스님을 은사로 1985년 입산해 같은 해 범어사 지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9년 범어사 지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만일사 주지, 총무원 사서국장 · 호법국장 · 감사국장 · 사서실장을 거쳐, 14대, 15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다. 현재 중앙종회 사무처장과 장경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정적 시각 거두고 화합승가위해 노력”

조계종, 11일 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



조계종 총무원은 3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선학원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단적 기구인 ‘선학원정상화를위한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3월 1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과 원로의원 월탄 스님, 혜성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중앙종회에서 제정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회는 1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종정 진제스님을 증명으로 원로의장 밀운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 및 총림 방장 스님 등 38명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지도위원에는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선원수좌, 중진 스님 등 26명이 참여한다.

추진위원장은 법등 스님이 맡았으며, 추진위원으로는 중앙종무기관장, 전국비구니회,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직할교구상임위원 등 81인이 위촉됐다.

이날 법회에서 종정 진제 스님은 교시를 내리고 종단에 단일 승가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교시에서 “종단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학원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계종 단일승가 구현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며 “선학원 집행부 또한 마음을 열어 일체의 불안과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고 부처님의 제일계인 화합대중으로 다시 하나가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제 스님 증명, 원로 고문
수좌 · 중진 등 140여명 참여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선학원은 근래에 설립정신을 잊은 채 무분별하게 사찰 등록을 받는 등 세불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종단의 종도들은 선학원이 자기 정리를 통해 청정 비구승의 수행공동체를 회복해 대한불교조계종 승가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무원은 조계종 승적의 선학원 창건주 및 분원장 스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행정진과 불법홍포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인욕과 정진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추진위원회는 종단 차원의 구성이기에 향후 선학원과의 대화와 협의는 종단을 대표한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로의원 월탄 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선학원은 오늘날 조계종이 있게 한 모체”라면서 “조계종과 선학원을 절대 둘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해와 설득으로 반드시 하나가 되도록 추진위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선학원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스님은 “선학원과의 문제를 풀기위해 대규모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그만큼 종단과의 관계가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종단 원로, 중진과 선학원 스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 분명히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선학원을 정상화시키기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미등록 법인 제재 7월까지 유예되나

조계종 중앙종회 개원 앞두고 위원회 안건 논의 분주

산중종회법은 존치키로
진흥원 특위 명칭 개정도
17일 임시회 개원 5일간

3월 17일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는 미등록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과 해인총림 방장 인준 등 종단의 첨예한 현안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부는 3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2차 회의에서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 검토의 건’을 보고하고 제재 조치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 명본 스님은 “법인관리법에 따른 권리제한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회가 원할한 협상을 위해 시행 유예를 요청해왔다”면서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종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일부 의원 스님들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선광 스님은 “법을 쉽게 성안하고 개정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조삼모사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재 조치를 유예하려면 앞서 법을 성안하고 제출했던 부서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상 스님도 “이미 유예 조치가 두 번이나 이뤄졌다”면서 “총무부가 7월 31일 전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유예를 요청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열리는 제201차 종회에 제출할 종헌 및 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 상향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종헌종법특위는 당초 산중총회 구성원 재적승 및 거주승의 자격을 법계 대덕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적잖은 반대에 부딪혔다.

다만 논의했던 대로 ‘총림법’ 개정은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림 방장의 임기는 10년 단임으로 하며, 방장은 임회 구성원 재적 3분의1 이상 혹은 주지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임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대한불교진흥원과의 대화에 나서기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로 11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놓고 내홍이 불거진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인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불기 2558(2014)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감사를 위한 제201차 중앙종회 제201차 임시회는 3월 17일 개원해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중앙종회 결과 차주 상보〉

직능대표 보궐선거 화평 · 성화 스님 당선

조계종 직능선출위, 9일 회의서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화평 · 성화 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종회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3월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지현 스님과 탄원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직능대표 종회의원에 화평 스님과 성화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화평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금사사에서 월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3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금산사 교무국장, 익산 심곡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과 나눔의 집 이사를 맡고 있다.

성화 스님은 정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한솔종합복지관장,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일산종합노인복지관장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附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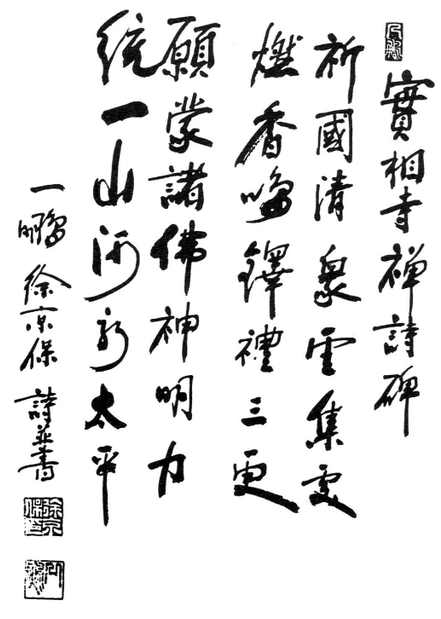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1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이타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外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 2년 졸업)
- 개 강 : 2015년 양력 3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붕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제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3매
- 접수기간 : 2015년 3월 24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
※ 특 혜 : 1기생 교육비 무료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9038-0908 학과장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신영동 93-1) 일붕선원 교무처